

#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융합적 비교

이은미, 오윤정\*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and Parent Efficacy among Parents of Preschool Child

Eun Mi Lee, Yun Jeong Oh\*

Dept.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Kwangju, Korea

**요약** 본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지식, 성태도, 부모효능감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학령전기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 70쌍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chi-square test,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자녀 성교육에 대한 책임(p=.043), 자녀 성교육의 경험(p=.043), 자녀와 성에 대한 의사소통정도(p=.019), 성과 관련된 정보제공(p=.024)에 있어 부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 성지식(p=.018), 성태도(p=.006)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p=.006)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바른 자녀 성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부모의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녀 성교육을 위해 부모 간 차이점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부모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성교육, 부모, 학령전기 아동, 효능감, 성지식, 성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parent efficacy among parents of preschool child. Participants were 70 couples, parents of preschool child.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t-test, ANOVA.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ren among parents, person in charge of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ren(p=.043), parents' experience of sexuality education for their children(p=.043), the number of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with their children(p=.019), th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sexuality(p=.024)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Sexual knowledge(p=.018) and sexual attitude(p=.006)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conduct differentiated education programs when teaching parents about sexuality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in preschool period,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 **Key Words** : Sex education, Parent, Preschool child, efficacy,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융합시대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 중 하나인 성은 다양한 문화와 매체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우리나라의 성문화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Corresponding Author : 오윤정(2000-tiger@hanmail.net)

대중매체, 성개방 문화 등 여러 영향을 받아 융합적인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성매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2]. 특히 최근 5년 사이 9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4.1% 증가하였고[3], 심각한 사건들이 기사화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4]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후 성교육이나 다른 경로로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5]. 또한 피해 아동은 지속적으로 우울과 불안감, 부적절한 성적행동, 자해 생각과 행동 등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6] 향후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 성범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7]. 가해 아동의 경우 친구나 선배들로부터 잘못된 성지식을 습득하거나 성차별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잘못된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8]. 또한 공식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성에 대해 배우면서[9] 인터넷음란물과 같은 왜곡된 성문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잘못된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0,11]. 또한 가해행동 이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존감이 낮아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12].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성범죄의 피해 및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과 바람직한 성태도, 성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13].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특성이나 태도, 가치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14]. 특히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아동일수록 올바른 성지식과 긍정적인 성태도가 형성되므로[15] 자녀의 발달단계를 잘 알고 있고 역할 모델이 되는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 성교육은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16]. 따라서 바람직한 자녀 성교육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 올바른 성지식과 성태도를 가지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17].

하지만 학령전기 자녀의 어머니 성지식 수준은 매우 낮아 자녀의 성적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17,18] 아버지의 성지식 수준은 어머니보다 더 낮아 자녀의 왜곡된 성지식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16]. 학령전기 아동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 자녀를 위한 성교육 강좌를 통해 부모들의 성지식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15].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바람직한 성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성평등하게 양육하거나 자녀가 바람직한 성태도를 형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18]. 특히 이러한 전통적인 성별 불평등과 성역할 고정화는 다양한 성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19] 부모의 성별에 따른 성인식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20].

일반적으로 학령전기 자녀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16]. 자녀와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횟수 역시 어머니가 더 많다[21] 대부분의 자녀는 성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어머니로부터 많이 얻고 있다[22]. 특히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낮은 부모효능감을 가지고 있고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와 성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는다[21]. 하지만 어머니는 딸과, 아버지는 아들과 성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나누면서 동성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는 것이 자녀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에 효과적이다[16,22]. 따라서 부모 모두가 자녀 성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부모 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16,18,23,24,25,26,27,28,29]가 대부분이며 학령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 간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교하고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 효능감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차별화된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 간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교하고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

식, 성태도, 자녀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 부모 간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학령전기 아동 부모 간 성지식, 성태도, 자녀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정도를 비교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 간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교하고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보육시설 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4개의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학령전기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 70쌍을 편의 표집하였고 구체적인 대상자는 첫째, 학령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둘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셋째,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05$ , 효과크기  $d=0.5$ , 검정력  $(1-\beta)=0.8$ 을 기준으로 independent t-test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각 집단별 6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G광역시 소재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13-003)을 받아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G광역시 소재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 75쌍(150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질문지의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작성상태가 불성실한 질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최종 140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성지식

성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Yang과 Kim[30], Choi와 Ha[31]가 각각 31문항과 40문항으로 개발하였고, Lee와 Kweon[1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남녀 신체 구조와 역할, 임신과 출산, 피임과 질환, 성폭력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2점 척도(맞다 1점, 틀리거나 모른다 0점)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Yang, Kim[3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4, Choi, Ha[31]의 연구에서는 .89이었다. Lee와 Kweon[18]의 연구에서 신뢰도 KR-20값은 .80이었고 각 항목의 내용타당도는 CVI 지수 .80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KR-20값은 .70이었다.

#### 2.3.2 성태도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Yang과 Kim[25]이 개발하였고 Lee와 Kweon[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임신과 출산, 양성평등과 성역할 태도, 성폭력과 성문화로 구성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다. Lee와 Kweon[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5이었고 각 항목의 내용타당도는 CVI 지수 .80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0이었다.

#### 2.3.3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3월 출간한 성교육 지침서를 기초로 Kim[26]이 개발하였고, Lee와 Kweon[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신체 구조, 역할 및 청결, 임신과 출산, 양성평등, 성문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자녀에게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 구성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총점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5이었다. Lee와 Kweon[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고 각 항목의 내용타당도는 CVI 지수 .80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다.

2.3.4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Jin과 Park[16]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설문지는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석사이상 학력으로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 4명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아 내용타당도 CVI 지수 .80이상인 13항목만 최종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chi-square test와 t-tes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140명의 대상자 중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70명으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9.01±4.64세로 35-39세의 대상자가 42.9%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36.63±4.24세로 35-39세가 50.0%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각각 68.6%, 58.6%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있는 경우가 55.7%, 54.3%로 많았다.

아버지 100.0%, 어머니 44.3%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 수준은 월 소득 300-500만원인 가정이 50.0%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유형은 핵가족이 95.7%였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직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성지식이 15.32±2.40점으로 직업이 없는 어머니 13.92±2.83점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3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1>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fathers and mothers (N=70 pairs)

Variables	Categories	Father (70)				Mother (70)			
		n (%) or M±SD	Sexual knowledge (M±SD)	t/F	p	n (%) or M±SD	Sexual knowledge (M±SD)	t/F	p
		39.01±4.64				36.63±4.24			
Age (yr)	≤34	12(17.1)	12.75±2.80	0.421	.658	19(27.1)	14.47±3.00	0.066	.937
	35-39	30(42.9)	13.57±2.65			35(50.0)	14.66±2.31		
	≥40	28(40.0)	13.57±2.99			16(22.9)	14.38±3.3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7(24.3)	12.47±3.32	1.444	.243	24(34.3)	13.83±2.04	1.437	.245
	≤College	48(68.6)	13.79±2.65			41(58.6)	14.83±2.95		
	≥Graduate school	5(7.1)	13.20±1.48			5(7.1)	15.60±3.44		
Religion	Have	39(55.7)	13.87±2.26	1.186	.240	38(54.3)	13.87±2.26	1.186	.240
	Have not	31(44.3)	13.08±3.13			32(45.7)	13.08±3.13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18(25.7)	12.39±2.73	1.858	.164	18(25.7)	13.56±2.79	2.144	.125
	300-500	35(50.0)	13.63±2.98			35(50.0)	15.14±2.75		
	>500	17(24.3)	14.13±2.31			17(24.3)	14.35±2.40		
Type of job	None	0(0.0)	0.0±0.0	39(55.7)	13.92±2.83	-2.195	.032		
	Work	70(100.0)	13.43±2.79					31(44.3)	15.32±2.40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67(95.7)	13.43±2.86	67(95.7)	14.61±2.74				
	Large family	3(4.3)	13.40±1.82			3(4.3)	13.00±2.00		

(Table 2) Difference in sexual attitud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fathers and mothers (N=70 pairs)

Variables	Categories	Father (n=70)				Mother (n=70)			
		n(%)	Sexual Attitude (M±SD)	t/F	p	n(%)	Sexual Attitude (M±SD)	t/F	p
Age (yr)	≤34	12(17.1)	42.00±3.95	0.249	.780	19(27.1)	43.68±3.09	0.069	.934
	35-39	30(42.9)	41.20±5.09			35(50.0)	44.00±8.09		
	≥40	28(40.0)	40.86±4.51			16(22.9)	43.31±3.7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7(24.3)	40.76±4.91	1.009	.371	24(34.3)	36.29±7.80	0.416	.661
	≤College	48(68.6)	41.06±4.60			41(58.6)	38.76±7.40		
	≥Graduate school	5(7.1)	44.00±3.94			5(7.1)	39.20±7.80		
Religion	Have	31(65.7)	41.97±4.94	1.239	.220	38(60.1)	43.68±7.81	-0.107	.915
	Have not	39(34.3)	40.59±4.36			32(39.9)	43.84±3.35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18(25.7)	40.67±4.77	0.279	.758	18(25.7)	45.39±10.70	1.166	.318
	300-500	35(50.0)	41.17±5.16			35(50.0)	43.66±3.21		
	>500	17(24.3)	41.88±3.48			17(24.3)	42.24±3.73		
Type of job	None	0(0.0)	0.0±0.0	70(100.0)	41.20±4.64	39(55.7)	43.00±3.82	-1.159	.251
	Work	70(100.0)	41.20±4.64			31(44.3)	44.71±8.17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67(95.7)	41.22±4.65	67(95.7)	41.22±4.65	67(95.7)	43.76±6.20	3(4.3)	43.67±6.03
	Large family	3(4.3)	41.00±5.10			3(4.3)	43.67±6.03		

아버지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 효능감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가정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그룹이 40.71±6.62점, 300-499만원인 그룹이 38.34±7.28점, 300만원 미만의 어머니 34.56±8.00점으로 월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8).

### 3.5 부모 간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부모 간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녀 성교육을 누가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아버지는 성교육 전문가(48.6%), 부모(35.7%), 보건의교사 또는 담당교사(15.7%)

순으로 응답하였고, 어머니는 부모(50.0%), 성교육 전문가(45.7%), 보건의교사 또는 담당교사(4.3%) 순으로 응답하여 부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3).

자녀 성교육 실시 여부에서도 어머니의 성교육 실시 비율이 50.0%로 아버지의 실시 비율 34.3%와 차이가 있었다(p=.043). 자녀와 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빈도에서도 아버지의 43.3%가 전혀 하지 않는다, 43.3%가 가끔 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나, 어머니는 67.1%가 가끔 한다, 21.4%가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9).

또한 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

(Table 3) Difference in parent efficac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fathers and mothers (N=70 pairs)

Variables	Categories	Father (n=70)				Mother (n=70)			
		n(%)	Parent Efficacy (M±SD)	t/F	p	n(%)	Parent Efficacy (M±SD)	t/F	p
Age (yr)	≤34	12(17.1)	32.67±7.70	0.786	.460	19(27.1)	35.74±5.40	1.973	.147
	35-39	30(42.9)	35.90±8.06			35(50.0)	37.86±7.75		
	≥40	28(40.0)	36.29±9.10			16(22.9)	40.75±8.07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7(24.3)	33.35±8.18	1.729	.185	24(34.3)	36.29±7.80	0.878	.420
	≤College	48(68.6)	35.65±8.68			41(58.6)	38.76±7.40		
	≥Graduate school	5(7.1)	41.40±8.68			5(7.1)	39.20±7.79		
Religion	Have	31(65.7)	36.97±8.20	1.271	.208	38(60.1)	37.97±6.86	0.037	.971
	Have not	39(34.3)	34.33±8.92			32(39.9)	37.90±8.41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18(25.7)	34.22±10.28	1.597	.210	18(25.7)	34.56±8.00	3.189	.048
	300-499	35(50.0)	34.77±8.46			35(50.0)	38.34±7.28		
	>500	17(24.3)	38.94±6.62			17(24.3)	40.71±6.62		
Type of job	None	0(0.0)	0.0±0.0	70(100.0)	35.50±8.65	39(55.7)	36.92±7.80	-1.273	.207
	Work	70(100.0)	35.50±8.65			31(44.3)	39.23±7.14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67(95.7)	35.37±8.78	67(95.7)	35.37±8.78	67(95.7)	38.16±7.58	3(4.3)	33.00±5.57
	Large family	3(4.3)	37.20±7.36			3(4.3)	33.00±5.57		

(Table 4)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sex education for children (N=70 pairs)

Contents	Responses	n(%)		x <sup>2</sup>	p
		Father(70)	Mother(70)		
Necessity of sex education	Yes	70(100.0)	69(98.6)	1.007	.500
	No	0(0.0)	1(1.4)		
When to start sex education	Childhood	6(8.6)	4(5.7)	6.354	.273
	Preschool	24(34.3)	36(51.4)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25(35.7)	23(32.9)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11(15.7)	6(8.6)		
	Middle school, High school	3(4.3)	1(1.4)		
	Over twenty years	1(1.4)	0(0.0)		
Responsible for sex education	Parents	25(35.7)	35(50.0)	6.299	.043
	Teachers	11(15.7)	3(4.3)		
	Sex education professionals	34(48.6)	32(45.7)		
Experience of sex education to child	Yes	24(34.3)	35(50.0)	3.545	.043
	No	46(65.7)	35(50.0)		
When sex education for children	Intentionally	4(5.7)	9(12.9)	1.473	.689
	Only when asked about sex	9(12.9)	18(25.7)		
	Only when there is a problem behavior regarding sex	6(8.6)	6(8.6)		
	When it comes to mind	9(12.9)	11(17.1)		
	Whenever	28(40.0)	45(64.3)		
Difficult of sex education	Not knowing the content and how to do it	34(48.6)	41(58.6)	1.998	.574
	Lake of textbooks and materials to use	17(24.3)	15(15.7)		
	Ashamed	10(14.3)	10(14.3)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9(12.9)	8(11.4)		
Necessity of training for parents	Yes	66(94.3)	66(94.3)	1.000	.647
	No	4(5.7)	4(5.7)		
Experience of sex education for parents	Yes	12(17.1)	17(24.4)	1.087	.202
	No	58(82.9)	53(75.7)		
Contents of sex education for child	Biological items	18(25.7)	24(34.4)	2.814	.611
	Gender equality	2(2.9)	1(1.4)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26(37.1)	22(31.4)		
	Pornography management	10(14.3)	6(8.6)		
	Sexual behavior	14(20.0)	17(24.4)		
Communication about sex between couples	Not at all	14(20.0)	15(21.4)	4.044	.400
	Very occasionally	33(47.1)	27(38.6)		
	Usually	20(28.6)	23(32.9)		
	Now a bit	3(4.3)	2(2.9)		
	Everytime	0(0.0)	3(4.3)		
Communication about sex between parents and child	Not at all	31(43.3)	15(21.4)	9.914	.019
	Very occasionally	31(43.3)	47(67.1)		
	Usually	7(10.0)	8(11.4)		
	Now a bit	1(1.4)	0(0)		
Source of information about sex	Family	10(14.3)	3(4.4)	11.255	.024
	Friends	11(17.1)	17(24.4)		
	Books or magazines	3(4.3)	11(15.7)		
	Computers or mass Media	39(55.7)	37(52.9)		
	Etc	6(8.6)	2(2.9)		
Children equality	Strongly disagree	5(7.1)	3(4.3)	3.400	.493
	Disagree	7(10.0)	9(12.9)		
	Neutral	18(25.7)	23(32.9)		
	Agree	16(22.9)	9(12.9)		
	Strongly agree	24(34.3)	26(37.1)		

아버지는 컴퓨터 또는 미디어(55.7%), 지인이나 친구(17.1%), 가족(14.3%) 순이었으나, 어머니는 컴퓨터 또는 미디어(52.9%), 지인이나 친구(24.4%), 책이나 잡지(15.7%) 순으로 답하여 부모 간 차이가 유의한 있었다(p=.024).

### 3.6 부모 간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부모 간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지

식 점수는 아버지 13.43±2.79점, 어머니 14.54±2.72점으로 부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8), 성태도 점수도 아버지 41.20±4.64점, 어머니 43.76±6.1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6). 그러나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은 아버지 35.50±8.65점, 어머니 37.94±7.55점으로 부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77).

(Table 5)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parent efficac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N=70 pairs)

Contents	M±SD		t	p
	Father(70)	Mother(70)		
Sexual knowledge	13.43±2.79	14.54±2.72	2.392	.018
Sexual attitude	41.20±4.64	43.76±6.14	2.778	.006
Parent efficacy	35.50±8.65	37.94±7.55	1.780	.077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부모 간 성지식, 성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직업이 있는 군이 직업이 없는 군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세부적인 직업 항목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온 결과[13]와 일치한다. 이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직장 내 동료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습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이 없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

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역할 태도를 분석한 연구[32]에서 어머니 연령과 학력에 따라 바람직한 성태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 이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가 성역할 태도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성폭력 등 일반적인 성태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높아져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33]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부모효능감은 높은 자녀교육 참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29] 효과적인 자녀 성교육을 위해서는 경제 수준이 낮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태도 점수는 어머니 43.76점, 아버지 41.20점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바람직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32]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이면서 전통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35]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대상이 본 연구와 다르게 노인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성태도는 어린시절 가정 환경에서부터 어떤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 사회화되어 일생동안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36]. 특히 양성적인 성역할 정체성을 가진 부모일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이고 자녀 교육에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므로[37] 부모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성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실제 중심의 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38] 강의식보다는 역할극, 토론 등의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점수는 어머니 37.94

점, 아버지 35.50점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인 부모효능감에 차이는 없다는 선행연구 [39]와 유사한 결과로 자녀 성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과 태도와는 무관하게 부모 모두 자녀 성교육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효능감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가 왜곡된 성지식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태도를 가진 상태로 자녀 성교육에 임할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성지식수준과 성태도가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자녀 성교육을 위해 부모의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토대로 부모효능감이 향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록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나 자기 효능감이 향상됨을 고려할 때[40] 자녀와의 성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지식, 부모효능감의 정도가 다르고 부모 간에는 성지식, 성태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각 가정의 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지식, 성태도에 차이가 있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자녀 성교육을 위해 부모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한 차별화된 부모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향후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부모의 특성을 토대로 올바른 성지식 확립과 바

람직한 성태도 형성을 위한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2&key\\_type=content&key=성범죄&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42140](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2&key_type=content&key=성범죄&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42140)
- [2]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idx=223220](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idx=223220)
- [3] E. H. Kim, J. O. Park, & H. A. Lee, "A study on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Vol. 19, pp. 131-154, 2011.
- [4] J. E. Kim, H. J. Kim, & H. S. Hong,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 in abuse, self-blam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sexually abused childre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Vol. 19, No. 2, pp. 243-254, 2015.
- [5] K. Christopher, & C. J. Lutz-Zois, A. Reinhardt, "Female sexual-offenders: Personality patholog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sexual abuse history and sexual abuse perpetration against others", *Child Abuse & Neglect*, Vol. 31, pp. 871-883, 2007.
- [6] J. H. Gang, & S. N. Kim, "An effectiveness analysis of remedial program against sexual offend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 35, pp. 71-105, 2014.
- [7] G. S. Shin, & S. H. Jo, (2009, August). A Qualitative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Seoul.
- [8] B. S. Hong, & M. A. Nam, "Effects of exposure to internet phonography on sexual assault and prostitution of adolescents", *Journal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40, pp. 9-39, 2012.
- [9] E. K.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analysis of a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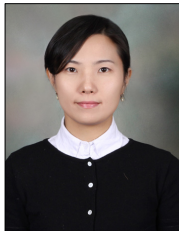
- thesi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2014.
- [10] <http://www.mest.go.kr/web/1121/ko/board/view.do?bbsId=159&boardSeq=8027>
- [11] K. Y. Lee, & S. H. Song, "Influencing factors on sexual knowledge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1, No. 3, pp. 406-416, 2016.
- [12] H. S. Jin, & H. R. Park, "Sexual knowledge education among parents of first and second elementary school graders", *Journal and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of sex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Vol. 17, pp. 198-205, 2011.
- [13] S. H. Guem, M. H. Kim, & I. S. Kang, "Research on sex education of young children's mother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Vol. 8, pp. 49-63, 2005.
- [14] E. M. Lee, & Y. R. Kweon, "Effects of a Maternal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3, pp. 370-378, 2013.
- [15] I. S. Choi, & J. I. Kim, "The effects of sexual violence myths,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s on aggressive sexu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20, No. 3, pp. 277-300, 2015.
- [16] K. S. Lee, Y. H. Hoe, & S. W. Park, "The effect of gender and age on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9, No. 1, pp. 65-81, 2015.
- [17] E. C. Gallegos, A. M. Villarruel, M. V. Gómez, D. J. Onofre, & Y. Zhou, "Research brief: sexual communication and knowledge among Mexica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J Assoc Nurses AIDS Care*, Vol. 18, No. 2, pp. 28-34, 2007.
- [18] L. Zhang, X. Li, I. H. Shah, W. Baldwin, & B. Stanton, "Parent-adolescent sex communication in China", *Eur J Contracept Reprod Health Care*, Vol. 12, No. 2, pp. 138-47, 2007.
- [19] R. A. Crosby, A. Hanson, & K. Rager, "The protective value of parental sex education: A clinic-based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Vol. 22, pp. 189-192, 2009.
- [20] K. L. Eastman, R. Corona, & M. A. Schuster, "Talking parents, healthy teens: A worksite-based program for parents to promote adolescent sexual health", *Preventing Chronic Disease*, Vol. 3, pp. 126-136, 2006.
- [21] J. S. Eum, "Effects of a parent-involvement sex education program for high primary-school gra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18, pp. 143-153, 2004.
- [22] U. S. Kim, "Effects of parent sexuality program for low primary-school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08.
- [23] J. D. Klein, P. Sabaratnam, B. Pazos, M. M. Auerbach, C. G. Havens, & M. J. Brach, "Evaluation of the parents as primary sexuality educators program",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7, pp. 94-99, 2005.
- [24] S. R. Park, "The effect analysis of parents sex education program to pub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2009.
- [25] M. A. Schuster, R. Corona, M. N. Elliott, D. E. Kanouse, K. L. Eastman, A. J. Zhou, & D. J. Klein, "Evaluation of Talking Parents, Healthy Teens, a new worksite based parenting programme to promot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bout sexual health: randomized controlled trial",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37, pp. 308-316, 2008.
- [26] M. S. Choi, & N. S. Ha,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 10, pp. 318-330, 2004.
- [27] M. S. Jeon, "The study about attitude and activity of sex role of parents with infancy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2008.
- [28] J. W. Lee, W. S. Lim, & K. E. Kim, "Parental efficacy, marriag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neighborhood context as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in low income preschool", *children'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 19, No. 5, pp. 761-774, 2010.
- [28] M. W. Kim, & M. J. Kang, "The effects of double Incom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9, No. 8, pp. 25-35, 2011.
- [30] G. S. Yoo, & S. H. K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101-118, 2010.
- [31] I. J. Jang, H. S. Son, & Lee, E. J, "Attitudes and associated factors of parent of kindergarten child", Inje Medical Journal, Vol. 23, pp. 513-520, 2002.
- [32] S. M. Lee, & J. M. Jang, "A study an parent efficacy and child rearing knowledge of parents in pregnan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6, No. 3, pp. 251-273, 2009.

#### 저자소개

##### 이 은 미(Lee Eun Mi)

[정회원]



- 1997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 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3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4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교육, 정신건강간호, 간호교육

##### 오 윤 정(Oh Yun Jeong)

[정회원]



- 2013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기본간호, 액션러닝